



주 제:	“ 믿음의 차이 ”	“연중 제 13 주일”	2009년 6월 28 일
복음 묵상:	[마르 5,21-43]	[지혜 1,13-15;2,23-24]	[2 고린 8,7.9.13-15]

교증미사가 끝나고 마당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보면 종종 안수를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러가는 청년, 입대하는 청년, 어디가 편찮으신 분 등 청하는 이들도 다양합니다. 언젠가 그렇게 안수를 해 주다보니 제 앞에 생각지도 않았던 줄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몸 안 좋으신 분들이 안수를 많이 청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기다리다 보니 줄이 만들어졌나 봅니다. 안수를 해 주다 문득 ‘안수를 받고도 안 나오면 어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괜히 제가 무안해져서 “편찮으시면 병원에 가 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해 주고 사제관으로 들어오면서, 안수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병원에 가보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의사가 필요해서 온 이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의사의 손에 맡길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당신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던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에, 군중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 믿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중 속에서 어찌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또한 딸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괜한 고생하지 않게 해 드리자는 말도,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비웃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 5,36)

병에서 나왔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서는 무엇이든 주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출천 김 응주 비오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이흥진 데레사 자매님 6/18-7/6 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모친 방문을 위하여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김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은 6/28 은 미사를 마치고 San Diego 로 떠나십니다. 여행중에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최철훈 베드로 형제님. 부친이 빨리 회복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주시고, 아울러 여행길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조성숙 리따자매님 고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 잘 마치고 편안히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계속적인 어렵고 힘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든 투쟁을 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를 위한 여름캠프
 일시 및 장소: 7/10(금)-11(토). Henry Cowell Redwoods State Park Campground.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따스한 모닥불 앞에서 오손 도손 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은 모두 성가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조셉 학사님 부제 서품**
- 9월 20 일 본당에서 맥그리 주교님 집전으로 학사님 부제 서품식에 따른 성가연습 예정.
 - 학사님을 위하여 기도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음 [마르 5,21-43]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지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들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셨을 때에 아이로라 하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를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살려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를 따라 나하시었다.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 싸고 밀어 대며 따라 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열 두 해 동안이나 하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군중 속에 끼어 따라 가다가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 서서 군중을 둘러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둘러 보시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찾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병이 완전히 나았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께 더 폐를 끼쳐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 오지 못하게 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울며 불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집 안으로 들어 가셔서 그들에게 "왜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아이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 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다 쿨"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소녀야, 어서 일어나거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라 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1분 명상

♡ "몸부림" ♡

「일본지혜」에서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생각할까?

매일 제자는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신비스런 대답을 들었다,
"갈망함으로써,"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을 못 찾았지요?"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와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스승은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고서, 그 가엾은 친구가
풀려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칠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

다음날 스승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했나?"
"숨이 막혀 그랬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느님을 숨막히게 찾는 은총을 받게 되면
하느님을 찾게 될걸세."

오늘의 말씀사랑: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1 티모 6,12)."